

# 바라밀현장

## 홍산보금자리 김진순 원장가족

###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극복 절로 하심되고 인욕공부도

홍산보금자리 김창희 이사장 부녀



"복지사업은 예상 외로 은가족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힘든 일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보람도 큼니다. 한 단계씩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면 절로 하심이 되고 인욕공부가 되죠."

홍산보금자리 김진순 원장(50)은 처음 남편의 포교원력에 공감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양과 헌신이 포교차원을 넘어서 생활속의 수행이 되었다고 말한다.

김 원장의 정신적, 물질적 지주인 친정 아버지 김창희(74) 이사장은 "딸이 혼자 복지시설을 꾸려간다는 게 너무 안스럽다"며,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딸의 뒤처다끼리를 하고 있다.

"노인복지라는 게 딱 게 아니에요. 동네 어른, 외로운 노인 잘 모시는 거죠."

김 이사장은 늘 딸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을 봉양하라고 강조한다. 아버지가 몸소 실천하니 딸인 김 원장도 친부모 이상으로 노인들을 공경하며, 날마다 새롭게 발심한다.

"할머니 오줌 마려우면 말해야 돼요. 식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응, 알았어. 미안시켜줘서."

지난 1일 전남 곡성군 결면 괴정리 873번지, 구 홍산초등학교에 자리한 곡성군의 유일한 노인 요양시설 '홍산 보금자리'. 이곳 장미방에



▷약 병원에서 퇴원한 임순임(94)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다정하게 위로하는 김진순 원장(오른쪽), 김 원장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편안히 모시는 게 노인복지'라고 말한다.

### 폐교보수...은가족 노인 뒷바라지

#### 남편 교수직 버리고 동참·부모도 딸 지원

#### 인근사찰 스님들 침 봉사·서예작품 제공

서는 김진순 원장이 막 병원에서 돌아 온 임순임(94) 할머니의 다친 팔을 만지며 위로하고 있었다.

평균연령 90세의 할머니 다섯분과 할아버지 세 분이 요양중인 홍산보금자리. 지난 해 1월 폐교를 개보수해 문을 연 홍산보금자리에 입소한 어르신들과 직원간에는 전혀 거리감이 없었고, 손녀가 친할머니를 대하듯 다정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이곳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김진순 원장의 친정 아버지는 이사장, 고종사촌 동생은 간

사, 남편은 연구원 등은 가족이 소임을 맡아 가족처럼 어르신들을 돌보기 때문.

특히 남편인 김도원(55) 거사가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노인들이 부처님 곁에서 편안하게 삶을 회향할 수 있도록 돕자며 광주신학대 교수직 사표를 내고 오로지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뛰어들었다.

친정 아버지인 김창희 이사장은 폐교가 되기 전 홍산초등학교에서 16년간 교장을 지낸 인연으로 부인 조환요(72) 보살과 함께 더덕이며, 도라지, 오가피, 산초 등 한약재와 밤, 매실, 모과, 감 등 유실수, 채

소 등을 길러 노인들에게 자연식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친정 동네 주민들을 비롯, 그녀를 돕는 이들도 하나 둘씩 늘고 있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서예가로서 구양순체의 대가인 우송 스님. 스님은 수시로 서예 작품을 기증하고 있다. 화순 심양사 백산 스님은 1년 동안이나 매달 한번 침술봉사를 해주고 있다. 또 인터넷 동호회인 '따뜻한 세상만들기' 회원들은 매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노인 요양시설로 인가를 받은 이후, 케이트볼 연습구장, 축구장 제공, 목욕서비스와 노인잔치 등 지역사회복지사업도 펼치고 있는 홍산보금자리.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인식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실시업반의 정성과 자원봉사가 절실하다.

0611363-3973, 후원구좌 : 농협(예금주 보금자리) 605105-52-002263

곡성=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 10월 참회의 달

- 참회는 신행의 좌표
- 포살법회 되살리자
- 참회를 통한 자기변화
- 참회의 방편
- 일상에서의 참회

#### 참회를 통한 자기변화

공덕화(48) 부산 영도구 보살은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자기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은 저절로 달라질텐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도박으로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잦은 불화를 일으킨 남편이 한없이 미웠고, 모든 것이 남편 탓인 것만 같았다. 괴로운 마음을 추스리려 몇 년을 절에 다녔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어느날 법문을 들던 중, '상대를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탓임을 로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인정할 때 꿈쩍도 안할 것 같은 환경도 바뀌고 도저히 안풀릴 것 같은 문제도 해결된다는 믿음이 들었다. 많은 불자들이 이처럼 참회를 통해 더욱 성실해진 남편, 가정에 충실한 아내, 마음 따뜻한 직장동료로 거듭났다. 마산 금강정토사에 가면 이와 같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는 불자들이 유독 많다. 금강정 독서, 108배, 1천배, 참선 등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금강정토사 불자들은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고 자신을



▷마산 금강정토사 신도들이 일과 후 금강정 독송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고 있다.

### 참회는 삶의 변화·거듭나게 하는 길

### 업장소멸·깨달음 이르는 선행조건

인정하는 것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법문이 들려왔어요. 늘 들던 법문인데 그날따라 마치 망치에 얻어 맞은 것 같았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굳게 믿으며 남편을 원망해온 스스로가 부끄러워 법회 내내 울었다. 남편을 향한 원망심과 증오심이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남편과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자, 남편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달라졌다. 공덕화 보살은 원망과 미움대신 남편이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또한 부처님을 대하듯 존경과 사랑으로 남편을 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옥 같은 가정의 극락처럼 변했고, 이후 공덕화 보살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겼다. 스스로 점검하는 참회가 자신은 물론, 주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금강정토사에 가는 가족 중 한사람이 불자가 되면 머지 않아 온 가족이 불자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

참회는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일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 직장 동료의 삶까지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 금강정토사 주지 자원스님은 "매일 매일 치열한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 그것이 진정한 참회"라며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참회를 통한 자기 변화"라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을 때의 이야기이다.

옆자리에서 소주잔을 곁들여가며 식사를 하던 두 사람의 대화가 마음을 끌었다. 두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고 대화는 주로 그들의 신앙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그 중 한사람은 나이

특히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대부라는 사람을 향해 자신의 신앙심을 피력한 신입신도의 말이었다.

대부에게 신입신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했다.

이젠 나이도 들고 허전한 감도 없지 않아 종교를 갖기로 마음먹고 친구를 따라 천주교에 입문을 했는데 신부님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으니 인간은 항상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쳐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 친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새 집안을 훑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가 장만한 집이 생각했던 것 보다 큰 것을 보고 자신의 집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 비슷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순간 '아차, 이게 신부님이 말한 죄로구

러러보기도 한다. 사람들이 비교하는 버릇은 명함을 주고받는 첫 대면에서도 일어나고 이웃과 이웃, 친구와 친구, 형제 부모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심지어는 진실을 추구하는 종교 속에서도 이런 비교하는 버릇은 계속되는데 하다못해 절을 찾고 회사를 찾아도 크고 웅장한 곳이 작고 왜소한 곳보다 가파와 공덕이 있다고 믿는다.

살생과 도적질이 아니라도 우리는 늘 알게 모르게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법이다. 우월감과 열등감, 존경과 멸시 등 비교하는 버릇을 끊고 물질과 외향을 좇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되바라내어 보아 조복 받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죄 짓는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寂然

### 마음비추기

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상대에게 대부님이라고 칭하였다. 알다시피 천주교에서는 신입신도의 신앙심을 위해 고충신도 한 사람을 선정하여 맺어주고 관리하는데 이때 신입신도가 고충신도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대부이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중

야 비로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대부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까닭을 묻자 상가에서 견어를 장사를 하는 그는 종교를 갖지 않아도 열심히 착하게 살면 그만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남들에게 피해준 일 없이 나름대로 정직

실감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본인이 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자신보다 어렵게 살던 친구가 새 집을 장만하고 집을 들이려 하게 되었을 때였다고 한다.

야파트 벨을 누르자 친구가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자신의 눈

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 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비교하는 버릇을 가지고 산다. 이 때 비교는 대부분 물질적이고 외향적인 주제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기도 하고 남들을 깔보거나 우

### 비교하는 마음 조복 받아야

##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 大韓佛敎 曹洞宗

宗正 尹智明(德瓚)

승정원장 : 韓春潭      승정부원장 : 崔諸空

- |             |           |           |             |
|-------------|-----------|-----------|-------------|
| 문도회장: 姜梵海   | 포교원장: 金法空 | 총무부장: 宋德性 | 全國教區 宗務院    |
| 총무원장: 朴心月   | 교육원장: 黃大隱 | 사회부장: 郭行旭 | 서울원장: 金德龍   |
| 부원장: 金日光    | 문화원장: 宋慧淨 | 교무부장: 劉光慧 | 경기원장: 洪晚悟   |
| 감찰원장: 金正林   | 선원장: 金大休  | 재무부장: 李法緣 | 강원1원장: 李滿慧  |
| 총회위원장: 林眞一  | 울원장: 朴一松  | 규정부장: 趙行修 | 강원2원장: 成慧泉  |
| 총회부위원장: 禹海倫 | 호법원장: 金大觀 | 총무부장: 延大景 | 충북원장: 朴雲鶴   |
|             |           | 사서실장: 郭法輪 | 경북원장: 林德眞   |
|             |           | 감찰부장: 李正默 | 대구원장: 梁海日   |
|             |           | 포교부장: 許雲成 | 경남중부원장: 黃法光 |
|             |           |           | 경남서부원장: 朴海月 |
|             |           |           | 울산원장: 鄭德正   |
|             |           |           | 부산원장: 鄭德正   |

佛紀 2546年 10月 4日

大韓佛敎曹洞宗 總務院長 朴心月(德潭) 전화 02)2062-0725 팩스 02)2062-0726

창건 1253주년 망골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

### 괘불제(掛佛祭) 그리고 작은 음악회

- 일 시 : 불기 2546년(2002년) 11월 9일(토) 오후 1시 ~ 8시
- 장 소 : 미황사 대웅보전 앞마당

#### I. 괘불제 (오후 1시)

- 괘불이운
- 괘불봉안
- 육법공양
- 헌공작법(바라춤, 나비춤)
- 법어

#### II. 금강스님의 종문양 탁본전

- "천년의 소리"
- 시 간 : 오후 3시
- 장 소 : 자아루

#### III. 제3회 작은 음악회

##### "달이랑 별이랑 사람이랑"

- 예불(중성, 법고, 예불은, 반야심경)
- 창건서사시 낭송
- 이애주교수의 춤
- 전병주님의 대금연주(곡 미황사)
- 범능스님의 노래
- 범능스님과 망골마을 아이들이 함께하는 동요합창
- 작곡작곡가 이원수님의 피아노 연주
- 탁영의님의 노래(노래모임 '꼬두메')
- 정기영 할아버지의 판소리
- 애남 우수영 사람들의 부녀농요
- 망골마을 어머니들의 풍물
- 말원문

문의 : 061)533-3521 / mihwangsae.com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번지